

사회적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 백서

2
0
0
3

사
회
적
소
수
자

인
권
찾
기

방
송
모
니
터

백
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층

전화 02) 392-0181 팩스 02) 392-3722

E-mail ccdm@ccdm.or.kr

홈페이지 www.ccdm.or.kr



(사)

인권정보자료실
M1.7

민
연
합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팀

순서

1. 발간사	4 page
1. 사회적 소수자 방송모니터링 강좌보고	6 page
2. 사회적 소수자 관련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보고서	68 page
3.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102 page
4. 좋은 · 나쁜 방송프로그램, 좋은 · 나쁜 보도프로그램	112 page
5. 제작진 간담회 보고	117 page
6.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링 활동 보고	127 page
7. 모니터링 분석 사례	132 page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애정을
미디어에서 만나기를 ...**

‘사회적 소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송과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이들에 대한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켜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이번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간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팀’이 진행한 모니터 결과, 예상한 것 보다 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정적인 시선과 세심하지 못한 접근이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주노동자 경우는 사회제도 변화와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경우는 간담회 참석자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방영된 방송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나마도 편견을 부추길 만한 내용으로 구성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좋은 방송, 모범으로 삼을만한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KBS <수요기획-“정신질환자 8% 시대-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시청자칼럼, MBC 특집다큐멘터리 등은 사회제도의 불합리함을 고발하거나, 사회적인 편견을

없에는 데 큰 역할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끝나고 마련된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의 간담회 자리도 그 무엇보다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작진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시청자 단체들도 좋은 면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사회적 소수자 시민단체들의 의견 또한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방송에서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해주시기를 바라는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구조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해 제작진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제작에 따르는 여러가지 배경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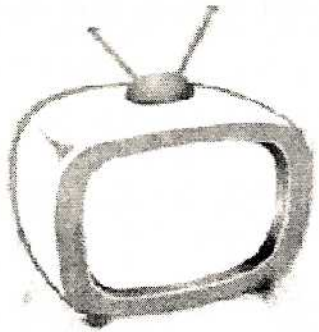
본회는 이번 모니터가 방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각 사회적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방송과 신문에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조작하고 있는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대안적인 방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칭찬해서 미디어가 소수자의 편에 설 수 있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애정을 미디어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바쁜 시간을 쪼내어 묵묵히 일해온 우리 ‘민언련’의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제작진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李明純

사회적 소수자 방송모니터링 강좌 보고



○ 교육 기획 취지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단체 및 시민들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방법론 교육과 실습,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실제 사회단체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 교육 접수

- 대 상 :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시민
- 일 시 : 2003.5.20(화) ~ 6.10(화) 7강 / 매주 화·목 / 저녁 7시
- 정 원 : 30명 모집 중 20명 수강
- 회 비 : 3만원 (강좌 4개 이상 출석시 전액 환급)
- 교육장소 : 민언련 교육관 (서대문 소재)
-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 신청 (02)392-0181
- 담당활동가 : 강윤경

○ 강의 및 강사진

- 1강 5/20(화)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2강 5/22(목) 방송프로그램 속의 소수자
 - 박웅진 (방송진흥원 연구원)
- 3강 5/27(화)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 - 보도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4강 5/29(목)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I - 시사교양
 - 최한성(문화평론가)
- 5강 6/3(화) 모니터 실습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6강 6/5(목)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김유진(민언련 기획부장)
- 7강 6/10(화) 언론관련 인권침해 구제 방법
 - 김택수(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 강의 평가

▶ 강의 내용 평가

강의	강 의 명	인상적인 내용	보완·첨가필요	건의사항 및 기타
1강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동성애자 관련 강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사사례 분석, 구체적 사례제시, 소수자를 나의 동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용어에 대한 편견 수정, 장애인 인권	구체적 사실에 대한 풍부한 설명, 이론적 보완 필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보완, 기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각 단체 정문적인 강의 추가 필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한듯, 인권활동으로 열심히 해주길, 민언련이 인권관련한 내용에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2강	방송프로그램 속의 소수자	'사실'이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미디어 이론강의, 어린이 프로에 대한 관심요청, 미디어의 효과	상세한 용어설명, 프로그램 분석적 접근법	다과시간 마련하기,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자폐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3강	보도·교양 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 - 보도	열정적인 강의 모습, 보도내용의 실제적 평가, 장애인 보도를 방송사별로 비교분석한 점, 이론 활용	보도모니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충 필요, 보도의 공정성·편파성, 왜곡·축소보도를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분석사례 필요

강의	강의명	인상적인 내용	보완·첨가필요	건의사항 및 기타
4강	보도·교양 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I - 시사교양	개인과 제도의 갈등 문제, 카메라 기법 실험, 접근 방도, 기법에 따른 이미지의 새로운 조작, 카메라에 대한 의미분석	편집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필요, 시사교양 모니터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족, 영상에만 치우침	비디오테잎에 대한 사전설치 필요
5강	모니터 실습	이론 활용, 모니터에 실질적인 도움, 토론	분야별로 풍부하게 진행되길	신문분야도 필요
6강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모니터 보고서의 주의할 점,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간단한 글쓰기 실습	시트지 수정
7강	언론관련 인권침해 구제 방법	언론인권피해에 대한 법적 해석, 구체적 사례제시, 구제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중재위 소소에 대한 사례나 통계, 사례제시가 더욱 풍부했으면 한다.	강의분위기 구성에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

▶ 담당자 평가

- 강의시간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강사진의 준비정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수강생들에게 강의평가서를 받은 결과, 대체로 사회적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부족해 각 분야별로 깊이있는 강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해와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분석방법에 대한 실습 또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행하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니터 활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실습을 더 늘리는 것 보다 다른 강의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강의 진행 후 토론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의시간이 너무 늦고 참여율이 저조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강좌 자료집

- 차례 -

1강 |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이주영

2강 | 방송프로그램 속의 소수자 | 박웅진

3강 |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 - 보도 | 이송지혜

4강 |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I - 시사교양 | 최한성

6강 |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김유진

※ 자료집 내용 첨부

1강	<h2>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h2> <p>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p>
----	---

1.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

○ 소수자를 규정하는 요인

인종, 성, 언어, 종교, 출생, 계급적 차이, 문화적 차이, 지배가치와 갈등하는 가치관 ...

○ 다름을 관리, 통제하는 방식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 병리적이다.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

-나는 너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 히틀러 치하에서 소수자, 약자 집단들은 강제수용소와 단종, 거세, 절멸의 대상이었다. '독일 땅에서 살 권리가 없고 절멸되어야 할 인간 쓰레기'로 취급된 군상들, 유대인(노란색), 반사회적 인간(검정색), 정치범(적색), 여호와의 증인(자주색), 범죄자(녹색), 이주자(청색), 동성애자(분홍색), 집시(갈색)

○ 소수자의 인권 옹호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제2조 :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성별, 정치적 의견 또는 그밖의 신념이 무엇이든,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든, 자기 나라 정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든, 혹은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모든 인간은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그 집단이나 이러한 권리의 향유로부터 배제되어선 안 된다.

-차별금지의 원칙

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육, 고용, 의료시설의 이용, 주택, 사회서비스 등 그 어떠한 사회 영역에서도 차별해선 안 된다.

-차이의 존중과 옹호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대우(차별금지)에서 나아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주류와 다른 기본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1) 모든 개인은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사회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뿐이 아니다. 소수자들이 지닌 특성과 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소수자들이 '인간'으로서 옹호받으며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가는 나의 '동료'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나의 동료로 삼을 수 없다면 그때의 '나'는 모든 '인간종'을 심판하는 아무 결함없는, 아무 '소수자적 특징'이 없는 나이다. 유색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불임이나 선천적 질병이 있는 사람도 아닌, 아마도 이성애자인 남성일지도 모른다.¹⁾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각자가 내 안에 존재하는 '타인성'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 소수자의 인권이 옹호되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 중심부의 시선으로 소수자를 보호의 대상에 위치시키는 것으로부터도 탈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수자들을 둘러싼 고통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핵심이다.

2. 언론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대중매체는 우리 세계를 반영한다. 매체는 사회의 부분. 사회에서 발견되는 차별, 편견, 불관용이 똑같이 언론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소수자와 스테레오 타입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소수자와 그들의 삶은 좀체 TV나 신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언론에서 이들이 묘사될 때는 편견에 근거한 어떤 전형성을 띠곤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언론에 나타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가 현실과 혼동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에 범죄용의자로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본 시청자들은 용의자의 인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용의자를 흑인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곤 한다.

○언론 속의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언론은 소수자들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독자들에게 편견과 스테레오 타입 없이 소수자와 관련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소

수자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란?

이성애자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성적 지향은 성적 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다. (호모나 동성연애자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에 대한 자유를 인권으로서 지닌다. 여기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 문서들은 모두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성 차별 금지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다고 선언했다.

- 성적 지향에 근거한 어떤 구별, 배제, 제약 및 우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교육, 의료, 주택, 노동 등 모든 영역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
 -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보호할 권리
 -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등에 대해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자신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여기에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현실²⁾

•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함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1) 양현아, 2002, 성적 소수자 : 법사회학적 쟁점과 전망, 성적 소수자의 인권

2)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 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용 및 참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스스로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고통.

'아웃팅'과 동시에 온갖 차별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

• 가정, 학교에서의 따돌림

• 종교적 낙인

• 남성 동성애자는 AIDS의 온상이라는 잘못된 등식

•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선의 폭력

2001년 7월 트랜스젠더 모 씨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외모가 다른 승객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함.

• 자의적 체포, 구금의 위협

-단지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욕을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음.

• 군대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한 달 간 군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됐다.

-아웃팅당하면 집단 구타, 성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

• 의료 및 상담계의 편견과 무지

병원이나 상담가들은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고 치료를 권유하곤 함.

• 교과서, 사전 등의 성적소수자 왜곡 ... 변태, 도착, 이상성욕??

• 방송과 신문의 편견 조장

-동성연애자 '호모'식의 비하적인 용어 사용

-호기심과 선정성 위주의 보도

• 아웃팅의 위협

-홍석천 씨의 경우

-범죄를 당해도 아웃팅을 당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개 성적 소수자가 범죄를 당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알고 이를 발미로 아웃팅

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해고의 위협

• 성적 소수자 배제한 가족제도 ... 이성애와 가부장적 결혼 강요

<생각해봅시다>

또 수혈로 에이즈 감염

동성애 남성 헌혈 10대 소녀·70대 노인 걸려 (한겨레 신문 03년 5월 13일자)

8년만에 발생 국내 피해자 12명으로

복지부, 헌혈액 검체 일정기간뒤 사용 등 추진

10대 소녀와 70대 노인 등 2명이 수혈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다. 수혈 에이즈 감염자가 생긴 것은 8년만이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월께 10대 소녀 7명이 뇌수술 후유증 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역학 및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5월9일 한 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자인 20대 남성의 피를 수혈받아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원은 또 이 남성의 피는 70대 남성인 ㄴ씨에게도 수혈돼 ㄴ씨도 감염시켰으며, 또 다른 수혈자인 90대 노인 ㄷ씨는 이미 질병으로 숨겨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수혈 에이즈 감염은 지난 1989년 40대 가정주부가 첫 피해자가 된 이래 95년까지 10건이 발생했으며 이번까지 모두 12건이다.

◇현대 의학의 한계 = 대한적십자사가 9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 항원·항체검사법은 감염된지 16일이 지나야 감염자의 피에 들어있는 바이러스(항원)를 식별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199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핵산증폭검사법(NAT)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 이주실 면역결핍연구실장은 "이 검사법도 감염된지 12일이 지나야 에이즈 바이러스를 식별해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수혈 에이즈 감염 사고는 현대 의학기술로서는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1년까지 수혈 에이즈 감염자는 미국 9352명, 영국 347명, 일본 110명으로 집계됐으며 2001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103명이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 헌혈로 감염 =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수혈 에이즈 감염자는 대부분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동성애자들이 헌혈한 피를 수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성접촉을 하고서는 며칠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가 된 피를 헌혈한 L씨도 동성애 경험이 있고 고교 및 군복무 시절, 지난 2002년 4월말 예비군 훈련 때 등 지금까지 세차례 헌혈했고 지난해 헌혈 직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이번 사건을 △모든 헌혈액 검체의 일정기간 보관 뒤 사용 △핵산 증폭검사법 도입 △예산 및 혈액 수가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에이즈감염자는 올 3월 현재 2122명이며, 사망자는 442명에 이른다.

(안중주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4. 장애인

○장애인?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인 건강상태를 분류하는 개념에 따르면, 장애(disability)는 활동의 참여에 제약을 가져오는 손상(impariment)의 결과다. 여기서 손상은 반드시 심각한 것일 필요가 없다.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손상이라 볼 수 있으며, 단지 이 때 손상은 안경을 씌으로써 쉽게 교정이 가능할 뿐이다.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활동은 8개의 범주로 나눠서 보는데, 1)학습과 지식의 적용 2)일반적인 과제와 요구 3)의사소통 4)이동성 5)자기 관리 6)가정 생활 7)대인 관계 및 상호작용 8)주요 생활 영역 9)공동체, 사회 생활

○장애인의 인권

• 인권은 보편적. 장애인 역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평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은 그들의 장애의 원인, 특질, 심각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간에,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같이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경제사회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1975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 권리선언)

•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의 원칙은 각 개인 및 모든 개인의 요구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사회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이 동

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장애인의 인권 현실³⁾

• 노동권 : 진입부터 해고까지 노동의 전 과정에서 차별 존재

- 등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의 임금 차별
- 일반 회사 취업 시 눈치를 주어 그만 두게 함
- 취업 면접 시 능력이 있음에도 거절당함
- 해고 1순위가 될 때
- 작업 지시를 못 알아 듣는다며 횡포를 부림

• 여성장애인의 권리

-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내 성차별까지 다양한 양상.
- 아이를 낳을 때 혹은 유전이 될까봐 가족들로부터 차별을 받음.
- 정신지체인의 경우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생존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써야 함.

•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장애,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비교적 장애가 심한 경우 의료시설에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 교육권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일어남.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또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 대학 입학 거부 당함
- 정규 입학 거부, 특수학교 진학 강요
- 일반아이들과 특수반을 차별

• 접근권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 장애로 인해 교통, 통신설비, 공공건물, 도로 이용 등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제한의 원인

3) 김정열, '한국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의의' 인용 참조.

이 되고,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용시 계단 불편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버스 같은 경우는 탈 엄두도 못 낸다. 지하철 역도 슬한 사고로 마찬가지.

-리프트가 있어도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동법을 모른다.

• 주거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들이 빈번.

• 정보 접근권

-등록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병력 유출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심각.

• 참정권

-다수인 시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참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

-선거시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시설 장애인의 권리

-여전히 미신고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이 문제. 시설 내 자기 결정권 침해.

• 생활 환경에서의 차별

-식당에서 밥맛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함

-한 백화점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줌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시각장애인)

-목욕탕에 갔을 때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며 오는 걸 꺼려해 한동안 목욕탕에 가지 못했다.

-지하철 이용 시 무료 승차권을 동냥 주듯이 던져주는 경우

<생각해봅시다>

[문화일보] 2003년 2월 19일

‘정신질환’ 방화용의자 계기로 본 실태 - 불특정다수 향한 ‘충동범죄’ 증후군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우리사회가 더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충동·증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김대환(56)씨의 경우 뇌졸중에서 비롯된 개인의 불만을 ‘사회에

대한 대규모 무차별보복’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같은 ‘불투정 다중상대대형 범죄’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객대경 교수는 “사회가 급변할수록 자신을 사회속의 ‘외판 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이들은 자기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여기며 우발·충동·증오 범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각종 형사사건은 1447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신이상자들의 범죄가 점차 특정 개인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저지르지도 모를 끔찍한 범죄에 시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 선교원에서 한 정신병자가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둘러 10여명의 원아들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12월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앞에서 30대 정신이상자가 시민 2명을 흥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91년과 92년 잇따라 발생한 정신 이상자들의 ‘여의도 살인질주’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다중상대 범죄는 이제 그 수법과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정신 이상자들이 이번 사건을 모방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화사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박순진 교수는 “불이라는 범행도구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불만은 가득하나 이를 남들앞에서 드러내놓고 표출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방화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는 방화사건이 아직 소규모 인명피해를 내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양성욱기자

5.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생활근거지란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 보다는 광역의 생활 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 근거지나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취업하는 노동자(국내이주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해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체류 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나, 불법이라 함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키는 것처럼 여겨진다. 불법체류자라는 호칭보다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한 노동자라는 의미로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국적, 인종, 법적 및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노동의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특히 인권 및 노동법과 관련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
 -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균등 대우의 원칙)
 -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이주노동자 및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
 -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
 -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 이주노동자 가족의 재결합의 권리
- *여기에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실⁴⁾

- 장시간 노동
 -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 (2002년, 국가인권위)
 -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2001년) : 1일 12시간 씩 한달을 꼬박 휴일 없이 일하고 월 50만원의 임금을 받음.
 - 경기도 소재 **정밀에서 일하는 몽골인 부부 :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함.

-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 산업기술연수생으로 15인의 중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주고, 잔업 수당은 아예 주지 않았다. 월 50만원을 받으려면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 태국인 여성 두 명과 남성 네명은 2000년 부천시 소재 공장에서 일하면서, 1일 8시간 노동에 월 39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4)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참조

•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폐쇄된 후, 사업주가 도주해 버려 고스란히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전액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 산업기술 연수생의 강제적립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중기협회의 지침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15만원 가량) 매월 원천공제해 은행에 적립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립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강제저금금지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연수업체에서 산업기술연수생의 이탈을 막는 한 방편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 산업재해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산재처리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 인신구금

인신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연수생. 사업주들이 산업기술연수생이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고자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수단을 동원하곤 한다.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사실상 강제노동.

• 단속과 추방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 및 추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단속 및 추방을 역이용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장의 현실이다.

• 차별대우

-공권력에 의한 차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55.8%가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쉽게 가해자로 오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한국사람들 까만 사람 싫어해요. 가난해서 한국 왔다고 싫어해요. 한국 TV에 보면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AIDS,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국가인권위 조사)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요즘에는 많이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를 피해 저 지하철 옆 칸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가나, 남성, 29세, 미등록노동자, 국가인권위 조사)

<생각해봅시다>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와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단속·추방 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의 21일 집회 참가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19일 낮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국정원·법무부·경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집회 참가는커녕 집회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또 출입국관리소 측은 “참석이 예상되는 주요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윤주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무부 말대로라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다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주노동자 카일(가명) 씨는 “우리가 집회 간다고 한국 정부가 그러면 그건 억압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억압하지 않겠어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카일 씨는 “공장에서 맞으면서 한국말 배우고 일 배웠다”며 “인간 대우 못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를 합법화 안 해 주고 1년 안에 내보내려고 해요? 우리 잘못된 거 없어요”라며 법무부의 ‘자진신고 기간 설정’에 대한 불만과 집회에 참가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올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사진과 공장주소 등이 기재된 신상기록, 내년 5월 25일 이전 출국 날짜가 찍힌 항공권, 고용주의 이탈방지 각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 간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히고, 이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년 후의 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 1년 내에 모두 추방하려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의 이주노동자 집회 역시 이러한 판단 아래 준비된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4월 20일자(제2067호)

소수집단에 대한 방송의 배려, 그 필요성과 사회적 당위성

민주주의 기본은 다양성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방송에서의 다양성은 바로 방송의 질과 연 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들이 높은 질의 방송체계란 폭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란 관점에 동의한다.⁵⁾ 소수집단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것처럼 알려 진 대부분 서유럽국가의 공영방송은 이런 측면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여러 집단 혹은 계층에 속한 시청자의 다양한 이미지나 유형을 반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 해, 가치, 정체성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소수집단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소수집단 묘사의 4단계

텔레비전이 소수집단을 묘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부인(否認, nonrecognition)'의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소수집단의 모습은 텔레 비전으로부터 단순히 배제된다. 소수집단은 비웃음을 받지도 않고, 풍자화되지도 않으며, 그저 텔 레비전 수상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국가의 시청자가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그런 소수집단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예 가 동성연애자들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소(ridicul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지배집단은 소수집단을 무능하고 비지 성적인 광대의 위치로 전락시키고, 정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조정(regulation)'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현존하는 지배 질서의 옹호자 내지는 협력자로서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일꾼 으로 묘사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는 '존중(respect)'의 단계이다. 소수집단들은 좋은 역이건 나쁜 역이건 지배집단이

맡아왔던 모든 역할을 똑같이 맡게 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형화된 등장인물이 사라지게 되었거 나 소수집단들이 모두 호의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등장인물의 유형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착하고 지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동성연애자의 묘사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텔레비전에서는 동성연애에 관한 언급이 어 느 정도 용인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게이나 레즈비언의 모습도 텔레비전에 등장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동성연애자를 고정배역으로 까지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드라마 프로그램 에서는 단지 이따끔씩의 초청 출연자(guest)만이 게이일 수 있었다. 미국의 경 우, 이와 같이 동성연애자들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도덕적인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동성연애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측 면에서 선전(善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애우의 묘사

미디어의 정형화 문제로 상당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또 다른 집단으로 장애 우들이 있다. 텔레비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장애우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은 때때로 비참한 불구자나 초인적인 운명개척자의 모습으로 정형 화되어 등장해왔다. 우선 비참한 불구의 경우, 장애우들은 그들의 무능력이나 사회적 시선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장 애우들을 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배역의 사람들이 주변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따끔씩 놀랍게도 이러한 설득이 물리적인 치료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행복은 육체적으로 온전했을 때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초인적인 운명개척자의 이미지는 암 연구 기금을 모으기 위해 수백 마일을 돌아다니는 초인(超人), 또는 정상인이 지각할 수 없는 소리 나 냄새를 기억해냄으로써 복잡한 범죄사건을 해결해내는 눈 먼 소녀의 모습 속 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Geoff Mulgan, "Television' Holy Grail: Seven Types of Quality," Geoff Mulgan(ed), The Question of Quality, London: BFI Publishing, 1990, pp. 26-28.

스테레오타이핑과 의미의 구성: 우리는 매춘부에 대해 알고 있는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이 주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정보원이지는 않다. 텔레비전이 그려주는 상(象)을 조절해주는 현실이 또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성되어진 지각된 현실이 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디어가 유일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실제의 매춘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식된 매춘의 실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주 짧은 스커트와 굽높은 신발을 신고, 진한 화장을 한 체로 거리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텔레비전속의 매춘부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매춘부들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옷을 입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아마 그녀를 "매춘부와 같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매춘부가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텔레비전이 그려준 모습일 뿐인가? 필자도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다. 사실 내가 아는 모든 매춘부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들이다. 내가 만약 실제로 매춘부를 만나면 텔레비전에 본 전형에 기초하여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 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정확한 것인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벌써 나에게 지각된 현실로 존재한다. 텔레비전으로부터 여러 부류의 인간 집단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동성연애자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다. 단지 미디어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경'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형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제부터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우리나라 방송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장애인과 방송 프로그램, 그 현황과 문제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선·후천적 장애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의 원인을 그들 개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방송은 국가시책으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장애인의 정보접근통로는 열려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인 대상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지를 다지고 결국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의 배려는 곧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장애인을 보는 왜곡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늘리고, 그들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해주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완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장

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나기 위해 힘과 용기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⁶⁾

우리 사회 내에서 방송이 장애인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일까?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정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광의(廣義)의 의미와 협의(狹義)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로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시청자 모두를 주시청자층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뉴스와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과 광고 등은 장애인을 주시청층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도 목표시청자에 포함되는 만큼 광의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주요 시청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즉,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안 등이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프로그램(내용적인 측면)과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장치들(수화, 자막, 영상해설방송 등)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형식적인 측면) 등은 모두 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협의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들로 분류된다. 또한 퍼블릭액세스권의 확립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 문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작된 최초의 TV 프로그램은 KBS 제3TV(현EBS)의 <해뜨는 교실>이다.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만들어져 교육방송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SBS의 개국과 함께 '91년도에 <사랑의 징검다리>가 탄생했다. SBS는 '93 연중 캠페인을 "장애인을 가족처럼"으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징검다리>는 SBS의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 장애인 방송이 최초로 대중에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영방송에서조차 장애인 대상 방송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업방송이 장애인 대상 정규TV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장애인 대상 방송을 활성화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 KBS에서 '93년 10월, <사랑의 가족>이란 장애인 대상 방송을 신설한 것도 <사랑의 징검다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장애인 대상 방송의 호시는 KBS 제1라디오의 <내일은 푸른 하늘>이다(현재 제3라디오에 편입).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 4월 13일에 첫 방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5년째 타이틀 변경없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같은 해 기독교 방송도 <찬양의 꽃다발>이란 장애인 대상 방송을 만들어 기독교 장애인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발전을 했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EBS <사랑의 한 가족>은 1994년 첫 전파를 탄 이

6 김연중, "정보화사회와 장애인 방송", 최창섭 엮음, 방송비평의 실제, 서울:한울아카데미, 2001.

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FM을 통해서 방송되던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관련 방송 프로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명목을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 폐지되었다.

정기편성

○ 편성분석

TV

현재 지상파,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TV를 이용하여 장애인 문제 등에 집중하여 제작되는 프로그램은 KBS 1TV의 <사랑의 가족>(매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12시)과 EBS의 <희망풍경>(매주 월, 화 오전 6시 30분-7시) 단 두 편뿐이다. 이는 KBS 일주일 전체 방송시간의 0.4%, EBS의 0.9%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비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HO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주시청자로 겨냥한 TV프로그램이 1%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방송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EBS의 현황이 이 정도이고 보면 상업방송에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사실 SBS의 경우, 과거 국내 방송 3사 가운데 장애인에 대해 가장 많은 배려를 하는 방송사였다. "장애인을 가족처럼"이라는 캠페인의 구호를 정해놓고, 장애인 캠페인의 담당자를 둘 정도로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12월 11일 개국특집으로 방송되기 시작한 <사랑의 징검다리>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정규편성하여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며, 좌절과 불편을 주는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겠다는 거창한 취지 하에 방송을 시작하였다. 편성도 방송사들이 "A급" 시간대로 분류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 1시 10분부터 2시까지 50분간 방송되었다. SBS는 <사랑의 징검다리>로 '93년도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94년 이후 <사랑의 징검다리>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고, 이후 방송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고 말았다. 초기의 '열심'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초기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에 집중한 것은 최초의 상업방송 출범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치장이었을까?

미미한 편성량외에 편성시간대도 사실 큰 문제거리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EBS의 <희망풍경>은 일주일 두 번 편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새벽 6시대에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어 '부지런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Radio

상대적으로 전파회소가치가 높은 TV에 비해 라디오는 비교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에 그리 인색한 편은 아니다. 서강대와 KBS가 공동운영하는 형식으로 1995년 12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사랑의 소리방송'은 당시 표준FM의 미사용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SCA(Subsidiary Communication Authorization)라는 특수라디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청취장애'를 지니고 있었

으나, 2000년 1월 1일 KBS 제3라디오로 재개국하여 현재는 기존의 SCA방식과 함께 AM639khz로 동시전송됨으로써 청취권(權)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1년 11월 기준 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21시간이다. 종교방송들은 대부분 한편 이상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극동방송(FEBC)은 매주 월-금 오후 5시 10분부터 20분간 <참 좋은 내 친구>를 방송하고 있으며, 평화방송(PBC)은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을, 불교방송(BBS)도 매주 토-일 밤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그리운 등불 하나>를 방송한다.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라디오를 이용, 다양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1978년에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In Touch'는 시각장애자뿐만 아니라 신체부자유자를 포함한 장애인에게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0여개의 신문과 잡지 등을 읽어주고 있는데, 청취자는 약 50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방송위성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공급되는 'In Touch'의 프로그램은 하루 8시간용 프로그램을 제작, 세 차례의 재방송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일본에는 JBS(일본복지방송)라는 장애인 전용 라디오 방송이 있다. 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 장애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시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RPH(Radio for the Print Handicapped)라는 장애인 전용방송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이들 방송은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채널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나 기업, 심지어는 호주의 경우 택시회사가 나서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내용분석

TV

KBS <사랑의 가족>

1993년 방송을 시작한 <사랑의 가족>은 '생생! 현장속으로', '아름다운 동행', '수화 한마디', '정보알림방' 등 모두 네 코너로 진행된다. 먼저 '생생! 현장속으로'는 각종 장애인 관련 이벤트나 행사를 직접 탐방해보거나, 장애인의 사회체험 현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취재구성 형식으로 꾸며보는 코너이다.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방송을 시청하는 비장애인들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겪게되는 여러 현실들을 간접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장애인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너로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뇌성마비 장애인 배우 김주상씨와 패턴디자이너 정진숙씨 등 장애를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 장애인들의 감동적인 인생을 '평범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코너 역시 자칫 계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해설자의 작위적인 내레이션 대신 주인공 주변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개구우먼 김미진씨가 진행하는 수화를 배워보는 '수화 한마디',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정보알림방' 등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KBS <사랑의 가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시청하는 ITV를 통해 방송되는 만큼 장애인의 입장을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제작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소개된 '생생! 현장속으로'와 '아름다운 동행' 역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비장애인과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론화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상파를 매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청자 층의 친숙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편성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장애인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구성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본질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알림방'에서 소개되는 장애인 관련 정보는 매주 2-3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방송되는 11월 넷째주 주요 TV뉴스시간에 방송되었던 교막이 손상된 청각장애인도 귀 대신 머리뼈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뼈로 듣는 헤드폰 개발' 소식 등 과학기술/의료 정보(11월 22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실시를 밝힌 정책정보(11월 15일자) 등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재(再)전달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희망풍경>

지난 해 가을개편을 통해 첫 선을 보인 EBS <희망풍경>의 대표적인 코너는 모두 네 개이다. "장애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되는 미담형식 '희망마을 이야기', 장애인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스포츠 등을 배워보는 '희망파워', 주로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하는 '희망매거진', 그리고 '오늘의 수화' 등이다. 그 외 장애인시설 등을 소개하는 코너, 장애인 취업정보 소개, 비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에티켓' 등의 코너도 있다. <사랑의 가족>에 비해 교육방송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을 위한 교육관련 소식, 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되고 있으나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코너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희망에티켓'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는 코너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되새기게 해보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코너라고 판단된다. <사랑의 가족>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 프로그램 역시 방송 3사의 주요뉴스 등에서 다루어진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의 재전달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셋째 주에 방영된 '주인대신 귀노릇'을 한다는 보청견 소식 등 과학기술/의료 정보(11월 17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밝힌 것과 같은 정책정보(11월 15일자) 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보의 종류도 좀더 다양화해줄 필요가 있다. 영국ITV의 <Sign On>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예술, 사회적인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문화소식이 될 것이다.

Radio

현재 KBS제3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장애인 전문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청취자인 장애인의 청

취형태 및 청취율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청취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편성전략을 새롭게 모색한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된 시점에서 사실 그건 너무 큰 기대인 지도 모른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소수 인력만으로 방송이 운영되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안팎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대형 다큐멘터리나 해외취재물 등을 제외한 드라마나 휴먼다큐멘터리 등 각 장르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체 기획과 노력을 통해 보강하는 있는 점은 매우 격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방송인만큼 일반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장애인의 시선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으로써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편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내용도 우선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더 폭넓은 청취자층을 확보하는 것도 '사랑의 소리방송'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가급적 장애인으로 채용함으로써 장애인들과의 친밀하고 원활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TV와 라디오를 막론하고 프로그램 진행자 중 장애인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 TV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에도 장애인MC는 한 명도 없다. 다만 KBS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은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를 진행자로 선정했으며, 불교방송 BBS-FM <그리운 등불 하나>도 장애자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담당PD는 진행자를 장애자로 교체한 이후 청취자들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더욱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고 있게 됐다고 말하였다.

계기/특별편성

장애인의 날 특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 라디오를 불문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에는 매우 인색한 한국의 방송사들도 '날'만 되면 그 동안 빚진 것을 순식간에 만회라도 하려는 듯 앞다투어 이벤트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신문에 실린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기사를 보자.

20일 각 방송사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들을 준비했다. 그 중 MBC의 4시간 짜리 특별생방송 '2001 함께 가는 세상' (오후2시30분)에 눈길이 간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있다'류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과 고용 문제를 충실히 언급하는 코너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도전기'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중소기업체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간 백승현 씨(26 정신지체2급)와 박미정 씨(24 · 뇌성마지1급)가 최종합격을 위해 실수와 좌절을 거듭하며 눈물겹게 애쓰는 한 달간의 수습생활을 밀착 취재했다. '함께 가는 길, 해남

에서 서울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다섯 팀이 전국 5개 도시를 체험하는 이야기.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도시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졌을 리 없는 공공기관, 야구경기장, 영화관, 도서관들을 이용하게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실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SBS '엔터, 장애 없는 세상으로'는 장애인을 배려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적인 사회역량으로 바라보자는 시각이 신선하다. 지난 해 장애인 컴퓨터 정보검색 대회에서 발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최우수상을 차지한 지체장애인 장진석 씨(25), 전자상거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김분녀 씨(21),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 시각장애인 박성오씨(20) 등을 다룬 휴먼 다큐를 통해 장애인과 컴퓨터의 행복한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방송 시간이 19일 밤 12시 35분인 것은 아쉬운 점. EBS는 뇌성마비 장애아를 키워야하는 엄마들의 고충과 바람을 다룬 다큐 '육아일기'를 특집으로 마련했다. KBS는 특집프로그램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들 속에 특집 코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⁷⁾

올해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프로그램의 편성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프로그램들은 알찬 내용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시청자들이 장애인의 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호응할 수도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특별 편성물들이 과거에도 늘 그러했듯이 스타 프로그램들이 선점하고 있는 자리를 비껴나 시청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각시간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통계조사 결과에도 아직도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삶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하루 정도는,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1년에 한번씩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⁸⁾

2000년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중계

이렇듯 장애인의 날만 되면 비록 사각시간대에 배치할 망정 특집 프로그램의 생색내기 편성에 열을 올리는 방송사들이 작년 10월 개최된 국제적 행사인 장애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성의없는 편성으로 일관해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장애인 올림픽 방송을 위해 일대 부산을 떠는 모습을 상기하면 씩씩한 웃음이 배어 나올 뿐이다.

방송 3사 중 그나마 유일하게 장애인올림픽 관련 행사소식을 전한 KBS의 경우, 개·폐막식은 위성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고 나머지 주요 경기는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녹화방송하였다. 정규 올림픽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성의한 편성이다. 반면 일본 NHK의 경우, 개·폐막식을 생중계한 것은 물론 대회기간동안 매일 오전 시드니를 위성으로 연결, 50분 짜리 하이라이트를 내보냈고 정규 뉴스시간에도 어김없이 장애인 올림픽 속보를 내보냈다. NHK의 보도는 일본 선수의 경기 내용과 결과 소개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국 선수를 비롯한 주요 종목의 세계적 선수들을 시청자들에게

7 <국민일보>, 2001년 4월 16일자.

8 최성주, "2001년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 분석", 「장애인먼저」 실천을 위한 방송 개입전략세미나 발제문, 2001년 10월.

게 알리고 전문가들을 동원, 복잡한 경기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팩시밀리를 통해 전달된 시청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도 꾸준히 소개했다. 격려와 메달획득을 축하하는 내용은 물론 '어느 선수의 경기모습을 보고 해고의 실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등의 감사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적어도 NHK를 통해 본 장애인올림픽의 흥분과 감동은 정규올림픽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장애를 극복한 강인한 의지도 빛났지만 일반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기량을 다투고, 승리에 환호하고, 눈물을 뿌리며 다음을 기약하는 장애인들의 평범한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다.⁹⁾

TV 프로그램 속의 장애인 분석

지금까지는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안 등이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 측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장치들(수화, 구화, 자막, 해설방송 등)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형식 측면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협의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달리 넓은 의미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등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등 광의의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묘사된 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 이미지들은 비록 개별 프로그램 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서로 합쳐져 결국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미지 생산에 대한 미디어효과 측면에서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

뉴스 속의 장애인 분석

○ 분석기간 : 2001. 1. 1 ~ 11. 27

○ 분석대상 : KBS·MBC·SBS 저녁종합뉴스

양적 분석

분석대상 뉴스 중 '장애인' 혹은 '장애자'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쪽지를 KINDS를 사용, 재분류한 결과 244건의 아이템이 검색되었으나, 이 중 장애인 관련 보도는 모두 223건이었다. 이는 분석기간 중 방송 3사를 통해 방영된 전체 뉴스 아이템의 0.7%에 해당하는 비율로, 앞서 살펴본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극히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방송의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관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지적될 만하다.

방송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특성상 취약집단이나 구매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방

9 <국민일보>, 2000년 10월 31일자.

송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멀찌감치 빗겨나 있는 게 사실 우리 방송의 본 모습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매체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매체의 특성, 방송조직, 그리고 운영방식 등으로 시청자의 소외를 조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들이 느끼는 정보 소외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지 못할 만큼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건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접하는데 원천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적절한 대책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여건 상에서 계속되는 정보부족이라는 악순환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만이 넘는 장애인들 중 85% 이상이 후천적 원인인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 환경공해 등으로 장애를 입은 자들이며, 후천적 장애의 경우 선천적 장애와 달리 이미 정보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는 까닭에 정보로부터의 소외감이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¹⁰⁾

장애인 관련 보도의 방송사별 비중 분석

장애인 관련 보도 223건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역시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각각 39.5%, 36.8%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민영방송인 SBS는 그 절반 수준(23.8%)에 지나지 않았다.

(표) 방송사별 장애인 관련 뉴스의 방영빈도 및 비율

방송사	빈도	비율
KBS	88	39.5
MBC	82	36.8
SBS	53	23.8
계	223	100.0

장애인 관련 보도의 주제별 분석

(표) 장애인 관련 뉴스의 주제별 빈도 및 비율

대주제	소주제	빈도	비율	
미담	시혜적 관점	시설/학교	11	4.9
		개인	7	3.1
		장애인일반	18	8.1
		기타	1	0.4
		계	37	16.6
	인간승리	예술인	8	3.6
		스포츠선수	8	3.6
		개인	29	13.0
		기타	9	4.0
		계	54	24.2
정보	과학기술/의료	17	7.6	
	취업/교육	1	0.4	
	정책	18	8.1	
	시설이용	13	5.8	
	계	48	21.5	
고발	시민/질서위반	18	8.1	
	장애인차별	3	1.3	
	장애인인권	0	0	
	정책	10	4.5	
	시설이용	19	8.5	
	기타	3	1.3	
	계	54	24.2	
행사	스포츠	8	3.6	
	집회/시위	6	2.7	
	기타	3	1.3	
	계	17	7.6	
사건	장애인주체	6	2.7	
	장애인대상	1	0.4	
	기타	3	1.3	
	계	10	4.5	
사고	장애인대상	3	1.3	
	계	3	1.3	
	계	223	100.0	

장애인 관련 보도를 6가지의 주제로 분류해 본 결과, 사안에 따른 아이탬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223건 중 미담이 91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뉴스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인간승리'류의 영웅담으로 미화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반면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미담의 절반 가량인 21.5%(48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취업/교육 관련 정보 등은 3사를 모두 합쳐 겨우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고발하는 보

10 주미령, "구체적 대안마련과 지속적 관심", 방송과시청자, 방송위원회, 1999. 12.

도들도 대부분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시민/질서외식에 대한 것과 시설이용 등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비교적 주변부에 속한 내용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반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고발내용은 겨우 10건(18.5%)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을 고발하는 내용도 3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다룬 3사의 아이탬은 전무했다.

방송사별로 주제별 편중성을 분석해 본 결과, SBS의 경우에는 전체 53건 중 절반 가량(49.1%)이 미담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관련 아이탬은 3사 모두 자사 뉴스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BC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고발성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나 장애인 관련 각종 시위나 집회 등을 포함하는 행사관련 보도의 비중은 KBS가 가장 높았다.

(표) 방송사별-주제별 장애인 관련 뉴스의 방영빈도 및 비율

주제		방송사			계
		KBS	MBC	SBS	
미담	빈도	37	28	26	91
	비율	42.0%	34.1%	49.1%	40.8%
정보	빈도	18	19	11	48
	비율	20.5%	23.2%	20.8%	21.5%
고발	빈도	17	26	11	54
	비율	19.3%	31.7%	20.8%	24.2%
행사	빈도	10	5	2	17
	비율	11.4%	6.1%	3.8%	7.6%
사건	빈도	5	3	2	10
	비율	5.7%	3.7%	3.8%	4.5%
사고	빈도	1	1	1	3
	비율	1.1%	1.2%	1.9%	1.3%
계	빈도	88	82	53	223
	비율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의 날 관련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관련 보도에 있어서 주제별 편중현상과 함께 시기별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전체 장애인 관련 보도 223건 중 약 20% (40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방송된 아이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의 날 하루의 비중은 365일의 0.3%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날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60배가 넘는 18% 가까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방송 저널리즘의 고질적인 냄비성 보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표) 장애인 관련 뉴스의 장애인의 날 관련 여부

장애인의 날 관련 여부	빈도	비율
관련있음	40	17.9
관련없음	183	82.1
계	223	100.0

장애인의 날 관련 아이탬들도 역시 심각한 주제별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단골 아이탬은 역시 미담이었다. 특히 이 날을 맞아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시혜를 격려하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평상시 보도에 비해 2-3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시설이용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아이탬들은 평상시 뉴스에 비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방송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미담과 고발내용들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 시기에도 역시 정부 정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평상시의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질적 분석: 장애인 관련 보도의 논조분석

특정 집단 혹은 계층에 대한 뉴스 제작자가 생산해내는 '이미지'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보도의 양적 분석과 함께 우리 방송보도가 과연 장애인과 관련된 아이탬들을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장애인들과 그들의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인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올 해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중 몇 가지 사례를 뽑아 장애인 문제를 보도하는 방송 3사의 논조를 질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 정부지원 확대방침 (9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추석을 맞아 민생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 정부지원 확대방침과 관련하여 방송 3사는 저녁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다루는 비중은 제각기 달랐다. 이에 대한 소식을 가장 상세히 다룬 방송사는 SBS였다. '정보화로 장애 극복'이라는 제목하에 "김대통령은 장애인들도 정보화 교육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앵커가 간략히 기사의 내용을 소개한 후 이어진 취재기자의 리포트에서 다른 방송사의 경우, 장애인 정보화사업 지원방침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요구 버스점거시위 (8월 29일) / 지하철역 장애인용 리프트 안전기준 마련 요구 선로점거시위 (2월 6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한 이동권의 개선을 요구하며, 버스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방송 3사는 뉴스 후반부의 단신으로 처리하는 등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보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을 보인 방송사는 MBC였다. KBS와 SBS가 앵커멘트와 간략한 기자 리포트로 단신 처리한데 비해 MBC의 경우,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고, 꼭지 후반부에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첨가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소송건 등도 보도하는 등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MBC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화재대피시설도 점검하고, 산재로 인한 장애인들의 처우문제와 지하철 리프트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¹¹⁾ 장애인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설을 맞아 역귀성길에 올랐던 노부부가 지하철 휠체어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이후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며 장애인들이 서울역에서 선로점거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KBS만이 단독보도하고 있으나 “기습적인 장애인들의 철로점거 시위로 서울 도심에서 퇴근길 수천명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며 장애인들의 시위 이유보다는 출근길의 불편함을 더 강조하는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사건·사고관련 보도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관련 보도는 그 사회적 파장을 인식해서인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3일, 아들집에 가려던 노부부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방송 3사는 모두 뉴스 초반부(5번째 꼭지)에 사고경위, 수사상황, 사고원인 및 대책 등을 기사 리포트, 관계자 인터뷰 등을 곁들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가던 노인들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동시에 변을 당했다는 점, 대형사고라는 점 때문에 이 사고는 다른 장애인 사고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방송은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한편 장애인이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은 적지 않은 편견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지난 5월 12일, 지체장애로 인해 좌절감에 빠진 한 20대 남자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을 잡고 2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 MBC와 SBS는 뉴스 초반부(3-4번째 꼭지)에서, KBS는 뉴스 중반부(20번째 꼭지)에서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리포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본질적인 범행동기에 대한 상세한 접근보다는 정신병력이 있는 한 장애인의 무모한 범행¹³⁾인 것처럼 사건을 개인화함으로써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불이익 등 범죄를 유발시킨 직·간접적인 동기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분석대상 뉴스 아이템

중 사건기사는 모두 9건이었는데, 그 중 범행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보도는 2건(22.2%)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보도는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몰린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장애인 관련 범죄보도의 경우, 범행동기를 설명하고 있는가?

사건기사의 범행동기 설명여부	빈도	비율
있음	2	22.2
없음	7	77.8
계	9	100.0

- 지난 3월 14일,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자살을 결심한 한 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 들었으나 어느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사건을 KBS가 단독보도하면서, 역시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당사자의 절박한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구해낸 용감한 한 시민의 영웅적 행동에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일 28번째 꼭지로 방송된 사건관련 아이টে็ม을 보도하면서 담당기사는 “김씨는 열차를 세우기 위해 달려갔고, 심주식씨는 선로로 뛰어 들었습니다. 심씨가 이 남자를 안고, 선로옆 배수구로 몸을 던진 뒤에야 열차는 섰습니다. 자살소동이 벌어졌던 선로입니다. 열차는 이곳으로부터 30m 전방에서야 가까스로 멈춰 설 정도로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라며 당시 사건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 반면, 자살을 기도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장애인의 무모한 행동에 하마터면 도쿄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자신은 숨진 고 이수현씨 같이 안타까운 일이 재현될 뻔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층취재의 필요성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배경과 원인은 짚어보는 등 심층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많은 아이টে็ม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전달해야 하는 메인뉴스의 성격상 그리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각종 시사고발/다큐 프로그램들을 통해 집중적·지속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그들만의 이슈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한다면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방송된 MBC <PD수첩>의 ‘감춰진 범죄-여성장애인 성폭행’은 이와 같은 좋은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1 ABU(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상’ 시상식에서 TV정보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여 그 사회적 기여도를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광고 속의 장애인 분석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을 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횟수에 놀란다고 한다. 그 내용들도 우리처럼 장애인의 고단한 삶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보다는 장애인들

11 이지혜, “미담 주인공 압도적, 사회구조적 문제에는 침묵”, 「장애인먼저」 실천을 위한 방송개입전략 세미나 토론문, 2001년 10월.

12 이지혜, “미담 주인공 압도적, 사회구조적 문제에는 침묵”, 「장애인먼저」 실천을 위한 방송개입전략 세미나 토론문, 2001년 10월.

13 당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앵커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늘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한 젊은이가 난폭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스스로없이 살아가는 생활인의 모습을 주로 다룬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 인 TV유아교육 프로그램 <세사미스트리트(Sesame Street)>는 말을 타다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이 된 영화배우 크리스토퍼리브가 장애아동이 포함 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숫자 · 글씨놀이를 하는 내용의 유쾌하고 밝은 모습으로 놀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또 다른 TV유아교육 프로그램인 <바니(Barney)>에서도 등장하는 여러 아이들 중에 장애인들은 반드시 포함될 만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들과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적 마인드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TV광고에도 백화점, 초콜릿, 과자 등의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할 때 장애인들을 많이 출연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올해 초에 EBS는 장애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리조리 숫자놀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채널4에서 제작한 유아대상 점토애니메이션으로 현재에는 대교 방송에서 다시 방송되고 있다. 일반 아이들 속에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이 등장해 차별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만이 출연하는 국내 어린이 프로그램과 대비를 보여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는 모 이동통신사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휠체어농구를 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나마 광고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예방 공익광고에서 잘못하면 장애인이 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¹⁴⁾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의 요약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편성의 문제

먼저 편성량의 문제와 관련, 평상시의 정기편성에는 TV, 라디오를 막론하고 장애인을 대상(for)으로 하는 것도, 장애인이 등장(with)하는 것도, 장애인에 의해(by)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 등 특별(계기편성)에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이벤트성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성량 뿐만 아니라 편성시간도 문제였다.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명분과 형식으로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문제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등 장애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애인 표현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이분법적인 접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민일보> 2001년 8월 13일자.

동정 : 인간승리

장애인의 불행한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비장애인들에게 "저 사람 참 불쌍하다"는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장애인을 마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시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반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미화와 영웅시를 통해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동의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강요하는 인간승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문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제도적인 배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편리함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 수화방송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고, 자막방송도 높은 비율로 제작되지 않고 있으며, 수신기를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나마 장애아동들을 위해 교육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는 자막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송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소외감도 여전히 있다. 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설자가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해설'방송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많은 장애인들은 DVS가 무엇인 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우리 사회의 욕구는 숨이 가쁘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조차 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3강	<h1 style="margin: 0;">보도프로그램 모니터 방법</h1> <p style="margin: 0;">이송지혜 민언론 모니터부장</p>
-----------	--

1. 우리 언론의 소수자 인권 관련 보도 문제점

- (1) 부정주의 보도
- (2) 단정적 보도태도
- (3) 미담과 가십 중심의 보도
- (4) 왜곡·편파보도
- (5) 이슈 보도에 인색
- (6) 무관심

2. 개선방향

- (1) 소수자 인권 의제화 필요
- (2) 정부나 각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 및 실천가능성 검증
- (3) 해설, 배경기사를 강화해야 한다.
- (4) 소수자 관련 사건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안된다.

3. 보도 모니터 체크 포인트

- (1) 내용
 - 보도의 공정성·편파성·왜곡·축소보도
 - 사안에 대한 심층분석이나 해설이 결여된 단순나열식 보도
 - 취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인격, 사생활 침해
 - 폭력적·선정적인 아이템 선정 및 접근방식
 - 연성 아이템 및 연성적 접근
 - 지나친 특종주의로 인한 오보의 남용 및 정정 불이행
 - 아이템의 채널간·채널 내 중복성

- 후속보도 미흡

(2) 정보원

- 비공식적 채널 남용
- 정보원의 편중현상

(3) 화면

- 보도내용과 관계없는 자료화면의 사용 및 안내자막 미사용
- 선정적·폭력적 화면 남용
- 앵커나 리포터의 전달태도 문제

○ 사례 1 -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도 -----

SBS 8시 뉴스 - 구제역 감염원, 외국근로자로 추정 2002-05-04

<앵커>

구제역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옷가지 등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유입경로를 차병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구제역의 원인 바이러스는 2년 전과 같은 '01바이러스' 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시의 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이번에 다시 활동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예방백신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구제역이 발생한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의 옷가지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농가에서 중국동포 등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경/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장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농장에서 중국 연변출신자들이 1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봄 유독 심했던 황사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경로가 다양한데다 치료법도 없는 만큼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는 축사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차병준 기자 fortuna@sbs.co.kr

[KBS 뉴스 9]외국인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2002.05.18

●앵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갖 수난을 당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방글라데시인 미두 씨는 직장에서 받는 낮은 설움과 협박을 이기다 못해 21일째 천막 농성중입니다. 임금체불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미두 하올라다(방글라데시):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신고한다고 협박해요. 집까지 찾아와서 때리기도 했어요.

●기자: 열악한 노동환경과 한국인들의 이유없는 멸시, 이것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굳세게 지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서부터는 더욱 어두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다쳐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임금을 못 받아도 항의도 못 합니다.

●최연근(중국 동포): 교포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얘기 못 하고 또 추락 사고를 당하고서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까 봐...

●기자: 심지어는 숨진 뒤에도 납골당에조차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2만명이 이러한 불법체류자인데도 이들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단순한 인건비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법률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푼 꿈을 갖고 왔은 한국. 그러나 이들에게 그곳은 너무 차갑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MBC뉴스데스크] 슬픈 아이들② 외국근로자의 아이들 2003. 05. 05.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가. 파키스탄 출신의 10살난 마한과 9살 매리는 잠자리에서 깃 깨어난 막내를 챙기는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식사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모는 아침 일찍 공장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10년 전 집을 떠난 아버지를 만나러 최근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머니마저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기자: 학교에서 한창 배워야 할 나이지만 어린 동생을 돌봐주느라 집 근처 놀이터가 유일한 놀이공간입니다. 놀다가 싫증나면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기자: 방글라데시에서 온 11살 소녀 사르비나도 한국의 어린이가 부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쓸 만큼 열심히 생활했지만 체류기한이 곧 끝나는 탓에 어머니와 헤어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자: 코리안드림이 시작된 지 10여 년. 가정을 꾸리는 외국인 노동자 들이 늘면서 출산과 교육은 이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 회사에서 외국인 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기를 원해요. 특히 낮에도 그렇고 밤시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마땅치 않죠.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어린이날은 그들의 나라만큼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MBC뉴스데스크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열쇠 2002. 4. 10

앵커: 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오늘 마지막 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들에 대

한 열악한 대우는 무엇보다 그들의 처지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에서 기인합니다. 현재로써의 최선책은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큼니다. 이주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임금도 많고 근로조건도 낮습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산업연수생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버리고 불법체류를 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터뷰: 합법적인 공급채널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죠. 수요 측면에서나 공급 측면에서나 불법취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기자: 노동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직접 고용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산업연수생 제도에 추가해서 필요한 외국 인력을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업체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외국인을 직접 선발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3년 정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용허가제입니다. 26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점차 합법노동자로 대체해 불법을 미끼로 자행되던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가 심합니다.

인터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퇴직금, 상여금 부분을 합해서 약 30%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2년 전에도 여당과 합의를 거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

○ 사례 2 - 소수자인권

MBC뉴스데스크 / 방송날짜: 2002. 12. 12.

동성애자 에이즈 파문 "공포에 떠다"

앵커: 자신의 AIDS 감염 사실을 남에게 알렸다면 또 다른 AIDS 감염자를 살해한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숨진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 명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옥탑방에서 AIDS 감염자인 동성연애자 25살 조 모씨가 같은 처지에 있는 42살 홍 모씨를 살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홍 씨가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AIDS 보균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조 씨와 숨진 홍 씨 모두 4, 5년 전부터 AIDS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인터넷과 찜질방 등에서 만난 30여 명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특히 수년 전 제주도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들에 의해 AIDS에 감염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감염자 확인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자: 경찰은 조 씨와 홍 씨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MBC뉴스데스크 방송날짜: 2002. 04. 14.
동성애 매수범 첫 검거

앵커: 남성이 남성에게 성을 매매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기자: 돈을 주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1살 남성 홍 모씨입니다. 씨는 인터넷의 한 동성애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홍 씨의 비디오카메라로 녹화까지 됐습니다.

기자: 홍 씨의 검거에는 전직 청소년 위원장 강지원 검사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검사는 이달 초 상담전화로 받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소년위원장 재직 당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던 강 검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홍 씨는 바로 검거됐습니다.

기자: 피의자 홍 씨는 다른 남학생을 상대로도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해 청소년 성매매의 피해가 비단 여학생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MBC뉴스데스크 방송날짜: 2002. 01. 05.
동성애 사이트 논란

앵커: 많은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애 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연을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 평소 자주 들르던 동성애 사이트 X존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적잖히 당황했습니다.

인터뷰: 두려움이 더 앞서겠죠,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죄를 지은 것 같고 자기의 정체성이 나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 X존측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교환하는 곳일 뿐 음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당국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성애는 변태도 아니고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성적 취향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아서도 안 됩니다.

기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혼음, 근친상간 등과 함께 동성애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X존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기자: 온라인상의 동성애사이트를 둘러싸고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SBS 8시뉴스 - 수혈로 10대 소녀 등 2명 AIDS 감염 2003-05-12
<앵커>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례가 8년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녀를 포함해 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뇌수술을 받았던 10대 소녀에게서 최근 에이즈 검사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당시 이 소녀에게는 모두 79명의 혈액이 수혈됐습니다.

혈액 역추적 결과 79명의 헌혈자 가운데 한 사람인 20대 남자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동성애 경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차례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이 이 소녀를 포함해 모두 3명에게 수혈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병이 있던 90대 남성은 이미 숨졌고 또 다른 70대 노인은 소녀와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A씨가 감염 초기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선/대한적십자사 안전관리부장 :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검사법으로는 감염초기의 헌혈자로 부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10차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8년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난 2001년까지 미국에서 9천3백52명, 영국 347명, 일본에선 110명이 수혈로 감염됐습니다.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소녀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3천만 원의 정부 보상금이 전부입니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4강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최한성 | 민언론 방송모니터위원회

1. 시사교양프로그램의 범위

- 1) 다큐멘터리 - 소재에 따라
 - ① 휴먼 다큐멘터리 : KBS의 <인간극장>, MBC의 <포토에세이 사람>
 - ② 문화 다큐멘터리 : KBS의 <뿌리깊은 나무>, EBS의 <문화산책>, MBC의 <즐거운 문화읽기>
 - ③ 자연 다큐멘터리 : MBC의 <야생의 초원 세령게티>,
 - ④ 시사 다큐멘터리 : KBS의 <추적60분>, MBC의 <PD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 ⑤ 역사 다큐멘터리 : KBS의 <역사스페셜>,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⑥ 환경 다큐멘터리 : EBS의 <하나뿐인 지구>, KBS의 <환경스페셜>
- 2) 다큐멘터리 - 형식·제작방식에 따라
 - ① 야외촬영+성우 나레이션 : KBS의 <영상기록 병원25시>, <인간극장>, <일요스페셜>
 - ② MC+재연화면 :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KBS의 <역사스페셜>
 - ③ 취재자 직접출연 : MBC의 <시사매거진2580>, KBS의 <취재파일4321>, SBS의 <뉴스추적>
 - ④ 관련 업무 종사자 직접출연 :
 - ⑤ VJ제작 : iTV의 <리얼TV>, KBS의 <VJ특공대>, MBC의 <6mm 세상탐험>
- 3) 토론프로그램 - MBC <100분토론>, KBS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BS의 <사제부일체>

2.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기능 - 시사 다큐멘터리 중심

- 1)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 보다 많은,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
- 2) 결과 중심에서 탈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 3)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 4) 은폐됐거나 묵살됐던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낱알이 밝힌다
- 5)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 6) 사회현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 7)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해체에 기여한다
- 8) 양비론 혹은 양시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
- 9) 사회갈등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3. 시사교양프로그램 제작단계

기획 - 구성 - 촬영 - 편집 - 원고 - 녹화(더빙) - 방송

- 1) 기획 - “기획의 성공이 프로그램 성공의 70%를 보장한다”
 - ① 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 ② 컨셉이 무엇인가?(키워드/한문장으로 표현)
 - ③ 관점, 형식, 소재, 영상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가?
- 2-1) 구성 - 모든 정보의 수집, 취재, 섭렵 후 구성
 - ① 제목은 무엇으로 정했나?
 - ②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③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단일주제로 가라)
 - ④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 영상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

2-2) 구성의 단계

- | | | | |
|--|--|----------|-----------------------|
| <p>프로 로그</p> <p>↓</p> <p>도입</p>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들어가는 실마리 - 첫번째 승부처 (항축성 있고, 다음이 기대되는 문장) - 의문형이 가장 흔하다(아니면 암시, 궁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예시 - 프로그램 인상매김 (매력있게) | <p>]</p> | <p>한개 상황 또는 여러 상황</p> |
|--|--|----------|-----------------------|

↓
전 개

- 프로그램의 관건: 소재 파악 병렬소재: →그러나 시간적 일직선상이
을 적절히 늘어놓기 발전소재: 아니다
- 재미있게 구성할 방법은 없는가?-보게 하기
- *논리적 시퀀스보다 인간적 시퀀스가 재미있다 (주인공화 하
는)
- 동색조화-같은 색끼리] 대체로 동색조화
 보색조화-튀는 것끼리] (논법은 3단 논법)
- 미시적→거시적] 방법의 문제
 거시적→미시적]
- 관점만들기-영상 속에서 리듬,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한다
- 각종 다양한 예의 선택적 예시
- 단락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다(시퀀스→그 안에서의 변화)
예)미시→거시/ 거시→미시

↓

클라이 막스

- 목표의 도달점

↓

정 리

- 본심 까놓고 얘기하기

↓

애 필 로그

- 주제와 내용을 압축하는 곳
- 마지막 승부(전체를 품고, 오무려 달려라)

3) 촬영

- ① 사실성에 무게중심을 뒀라
- ② 영상확보에 신경을 써라 : 이 때 소리도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4) 편집 - "30초에 승부가 난다"

- ① 프롤로그는 최초의 승부처, 에필로그는 최후의 승부처다
- ②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마라
- ③ 친절하라
- ④ 소리(Audio)에 신경쓰라
- ⑤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 ⑥ 잘 버리는 것도 연습이다 : 프로그램은 나열이 아니다

5) 원고 - "나레이션은 화면을 보완하는 2차적 메시지다"

- ① 화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언어를 조립하고 구성하라
- ② 나레이션의 7-80%는 사실임을 명심하라 :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말라

③ 단문으로 원고를 작성하라

- 형용사, 부사는 피하라
- 어려운 단어 사용을 피하고 되도록 쉽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라
-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하라
- 지시대명사, 지칭대명사의 사용을 피하라

④ 단문이라도 리듬감이 있어야 한다

- 읽어보라, 읽기 힘든 원고는 좋은 원고가 아니다
- 영상이미지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압축성이 있어야 한다

⑤ 강조를 위한 키워드를 설정하고, 적절히 활용하라

⑥ 전체에 색깔이 필요하다

⑦ 부분영상에 빠져 전체를 놓치지 마라

⑧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을 잡아라

- 편집된 영상에는 의도가 있다
- 한 영상에는 여러 정보가 있다

⑨ 나레이션은 중계방송이 아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화면의 의미를 지적하라

- 나레이션 없이도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 영상과 글이 합쳐지면 제3의 효과를 낸다

⑩ 현장음을 적절히 활용하라 : 인터뷰도 나레이션의 일부다

⑪ 해설이 화면을 앞지르지 마라

- 본 다음에 느낀다
- 전지주의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일방적이다

⑫ 소리내 읽으며 써라(구어체와 문어체)

- 호흡 - 구절과 길이
- 음률 - 리드미컬
- 단어 - 발음이 평이하고 색깔이 밝은 단어
- 발음 - '하여' 는 '해서' 로, '되어서' 는 '돼서' 로

⑬ 영상이 우선이고, 나레이션이나 음악은 부수적이다

6) 촬영(더빙)

7) 방송

4. 프로그램 보기 -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 1) 주제의식(Concept)이 치열한가?
- 2) 새로운 가치(시대정신)가 담겨 있는가?

- 3)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소재/해석/구성/인터뷰)
- 4) 실험성, 정보, 새로운 시각이 녹아 있는가?
- 5) 완성도가 있는가?
- 6)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는가?
- 7) 대안은 있는가?
- 8) 기타

5강	<h2 style="margin: 0;">모니터 보고서 작성법</h2> <p style="margin: 0;">김유진 민언론 기획부장</p>
-----------	--

1. 모니터 보고서 쓰기의 어려움

(1) 언론감시 활동의 한 과정으로서 보고서 쓰기

- 모니터 보고서는 왜 쓰는가? : 보고서의 작성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 충실한 모니터가 없으면 충실한 보고서도 없다.
- 보고서의 활용까지 고려한다.

(2) '비평'으로서의 보고서 쓰기

-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가? :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 비평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부각되는가?

(예 : 신문을 읽지 않은 독자,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시청자에게 텍스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나?, 문자언어로 영상매체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나?)

(3) '글쓰기'의 어려움

-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 모니터 보고서는 학술 논문이 아니다. 가능한 쉽게 쓴다.

2. 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의 전체 틀을 짠다.

- 보고서 작성은 집짓기와 같다. : 뼈대(주제)를 세우고 살을 붙인다.
- 모니터 대상, 모니터 기간을 고려해 전체 틀을 구상한다.
(예: 매체별로 쓸 것인가, 주제별로 쓸 것인가)
-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문단(첫 문장)에 핵심을 담는다. : 두괄식(또는 양괄식) 구성으로 독자의 시선을 끈다.

- 전체보고서의 핵심 내용, 한 단락의 핵심 내용을 염두에 두고 써내려 간다.

- 제목(전체 제목/중간 제목)만으로 보고서의 주제가 파악되어야 한다. : 하나의 제목, 하나의 메시지. 짧고 간결하게.

- 모니터 대상과 기간을 정확하게 밝힌다.

(2) 글쓰기 요령

- 가능한 단문으로 쓴다.
- 간결하고 쉽게 쓴다. 어려운 단어, 특정 집단에만 통용되는 약어를 피한다.
- 6하 원칙에 충실하게 쓴다.
- 객관화한다. 형용사어, 부사어 등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어·서술어, 시제가 일치하는가?
- 존칭어를 쓰지 않는다.
- 단어, 문장의 반복을 피한다.
-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 <표>, <그림> 등을 이용한다.
- 접속어는 필요할 때, 정확하게 쓴다.
- 오자는 보고서의 신뢰도를 깎는다. : 자료로 제시된 숫자, 영문 약자는 두 번 이상 확인한다.
- 인용은 정확하게 처리한다. (직접인용, 간접인용을 명확하게 한다)

3. 모니터 보고서의 실례

○ 사례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방송3사 '이라크 침공' 보도 모니터 보고서>

◇ 모니터 대상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 모니터 기간 : 3월 20일~3월 26일

3월 20일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방송3사는 개전과 동시에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등을 특별편성 하여 본격적인 전쟁보도 체제로 들어갔다. 그러나 방송3사의 전쟁관련 보도는 전쟁의 상황전달에 그쳤으며, 미·영군의 발표에 중심을 두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방송3사 메인뉴스의 이라크 침공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다.

1. 보도량 분석

방송3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일 오전부터 낮 시간 속보, 저녁 메인뉴스 시간 특

집 편성을 통해 이라크 침공을 집중 보도했다.

이번 전쟁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생각할 때 관련 보도들은 비중 있게 다루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방송3사가 메인뉴스의 70%이상을 이라크 침공관련 보도로 채우는 것은 보도 내용의 편중이라 할만 하다.

일주일간의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량을 살펴본 결과 KBS는 총247쪽지 중 182쪽지(73%)를 이라크전쟁 보도에 할애하였고, MBC는 총235쪽지 중 202쪽지(85%)를 보도하였으며, SBS는 총225쪽지 중 169쪽지(75%)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전체보도에서 차지하는 이라크 침공 보도의 비율이 타 방송사보다 10%정도 높았다(<표1>참조). 특히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침공 당일 특집 뉴스 51쪽지 중 무려 46쪽지를 이라크 침공 보도에 할애하였으며, 22일에는 34쪽지 중 단 한 쪽지를 제외한 33쪽지의 이라크 침공 보도를 하였다.

<표1> 0320-0326 방송3사 메인뉴스: 전체보도에서 이라크침공 관련보도 비율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계
KBS 뉴스9	전쟁보도	29	30	26	26	23	26	22	182(73%)
	전체보도	39	41	34	39	32	30	32	247(100%)
MBC 뉴스데스크	전쟁보도	46	24	33	28	26	24	21	202(85%)
	전체보도	51	30	34	31	30	32	28	235(100%)
SBS 8시뉴스	전쟁보도	27	31	35	20	20	18	18	169(75%)
	전체보도	34	41	46	24	27	27	26	225(100%)

전쟁 참상 외면한 방송3사

방송 3사 관련 보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전황보도였다. 전쟁관련 전체 보도 중 전황 보도의 비율은 각각 KBS 45% (81/182), MBC 34% (68/202), SBS 43% (72/16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MBC는 전황 자체에 대한 보도 비중이 타 방송사 보다 10% 정도 낮았으나, KBS와 SBS는 절반에 가까운 양을 전황보도에 할애해 보도주제의 집중현상이 뚜렷했다.

전황보도에서도 전쟁 상황을 단순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전황에 대한 분석은 미비했다. 전황관련 보도 중 전황을 분석한 보도 비율은 KBS가 21% (17/81), MBC가 41% (28/68), SBS가 58% (42/72)였다. KBS의 경우 전체 보도에서 '전황관련'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중 '전황분석' 보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단순히 사건 전달 위주로 보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SBS의 경우 타 방송사에 비해 '전황분석' 보도의 양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미국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반면, 이라크 현지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도는 첫날의 경우, MBC를 제외하면 아예 없었다. 3월 22일을 기점으로 미군의 오폭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세계의 반전여론이 높아지자 전쟁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전체 전쟁보도의 10% 안팎에 머물렀다. 전쟁피해 보도의 비중은 KBS 11% (20/182), MBC 10% (20/202), SBS 8% (13/169)로 방송3사간 별로 차이가 없었다. 현지 취재가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해도 전황 보도와 비교해보면 방송3사 모두 전쟁의 참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표2>참조)

<표2> 방송3사 이라크침공 관련 보도주제 분류

(단위: 건)

보도주제\날짜	3/20			3/21			3/22			3/23			3/24			3/25			3/26			계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전황전달	9	7	4	13	4	6	10	9	4	13	5	6	8	6	2	5	5	1	6	4	7	64	40	30
전황분석	3	10	7	3	2	3	2	4	10	1	3	6	4	3	7	3	5	5	1	1	4	17	28	42
전쟁영향분석	1	5	1	0	1	2	2	3	4	0	4	0	1	3	0	2	1	0	0	2	0	6	19	7
국제반전	4	1	1	1	3	1	2	3	2	2	2	1	2	1	2	2	1	1	2	1	1	15	12	9
국내반전 및 파병	0	4	2	2	3	2	2	2	1	2	1	1	1	2	1	1	4	1	3	3	2	11	19	10
전쟁피해	0	1	0	3	1	1	2	3	3	4	4	2	3	5	2	6	4	2	2	2	3	20	20	13
무기/특수부대	2	5	2	1	1	5	1	3	1	2	3	0	0	0	0	1	0	1	2	2	0	9	14	9
기타	10	13	10	7	9	11	5	6	10	2	6	4	4	6	6	6	4	7	6	6	1	40	50	49
계 (전체꼭지수)	29	46	27	30	24	31	26	33	35	26	28	20	23	26	20	26	24	18	22	21	18	182	202	169

반전 여론 충분히 담지 못해

국내외적인 반전 여론과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한 보도도 미흡했다. 방송3사의 반전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KBS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이라크침공 관련 182꼭지 중에서 국제 반전 여론은 15꼭지, 국내 반전 보도는 12꼭지로 총 26꼭지(14%)였다. MBC는 이라크 관련 202꼭지 중에서 국제 반전 여론 보도가 12꼭지, 국내 반전 여론 보도는 19꼭지로 총 31꼭지(15%)였다. 한편, SBS의 경우 이번 전쟁 관련 보도중 국제 반전 여론을 다룬 보도는 9꼭지, 국내 반전 보도는 10꼭지로 국내외 반전여론 보도수가 총 19꼭지(11%)로 드러났다. (<표2>참조)

더욱이 방송3사는 반전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반전운동 보도들은 하나같이 세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전 시위 모습을 보여주고 시위대 인터뷰를 내보내는 것에 그쳤다. 반전여론에 대한 보도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나 단발성 기사에 그치고 있을 뿐 분석보도 혹은 기획 보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국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방송3사의 보도는 소홀했다. KBS의 경우 단순 상황 전달 보도 4꼭지, 파병 반대 여론 보도 3꼭지, 정부측 입장(찬성) 보도가 4꼭지 등 총 11꼭지였고, MBC의 파병 관련 보도는 단순상황 전달 보도 4꼭지, 파병 반대 보도 5꼭지, 정부측 입장(찬성) 보도 4꼭지 등 총 13개였다. SBS는 이라크전 파병 관련 보도가 단순 상황 전달 2꼭지, 파병 반대 여론은 3꼭지, 정부측 입장(찬성) 보도가 3꼭지 등 총 8꼭지였다. 파병문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음에도 방송사들은 '의제 설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2. 보도 내용 분석

미국의 미디어전에 동원된 방송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관련 보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외신 및 외국 정보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전체 보도 중 외신 및 외국 정보원 인용 꼭지의 비율은 KBS의 경우 54%(99/182), MBC의 경우 50%(100/202), SBS의 경우 50%(84/169)로 외신 및 외국 정보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3>참고). 지리적 여건과 국내 방송제작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보도의 50% 이상을 외신 및 외국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방송3사가 외신에 의존해 메인뉴스를 제작함으로써 단순 전쟁속보와 메인뉴스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

<표3> 방송3사 이라크침공 관련보도에서 외신 및 외국정보원 분석

(단순화면 인용 제외)

(단위: 건)

정보원\날짜	3/20			3/21			3/22			3/23			3/24			3/25			3/26			계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K	M	S
서방언론	5	5	3	2	6	2	4	4	4	6	9	4	4	2	2	1	3	4	4	3	3	26	32	22
미영정부,군	4	11	7	6	6	7	5	12	15	8	9	10	2	8	4	7	8	2	7	3	7	39	57	52
아랍언론	0	1	1	1	1	2	1	2	4	1	3	2	5	5	4	3	1	1	0	1	2	11	14	16
이라크정부 이라크군대	2	4	2	2	0	1	2	2	4	3	3	4	2	4	2	2	5	1	3	1	3	16	19	17
제3국	2	0	1	0	2	1	4	2	4	0	4	0	0	0	0	1	0	0	0	0	0	7	8	6
계	13	21	14	11	15	13	16	22	31	18	28	20	13	19	12	14	17	8	14	8	15	99	130	113
인용꼭지수	13	16	12	11	12	13	16	16	18	18	21	14	13	15	10	14	14	6	14	6	11	99	100	84
전체꼭지수	29	46	27	30	24	31	26	33	35	26	28	20	23	26	20	26	24	18	22	21	18	182	202	169

또한, 방송3사는 정보원 선택에 있어서도 과도한 미국 편향성이 드러났다. 방송3사는 대부분의 보도에 있어 미·영정부, 미군·영국군 정보원을 인용하거나 CNN, AP통신, NBC, BBC등 미국, 영국계 외신을 정보원으로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방언론 및 미·영정부군 정보원 인용비율은 KBS 66%(65/99), MBC 68%(89/130), SBS 65%(74/113)로 전쟁의 다른 당사자인 이라크, 아랍언론 인용비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아랍언론 및 이라크정부군 정보원 인용비율- KBS: 27%(27/99), MBC: 25%(33/130), SBS: 29%(33/113)).

알 자지라 같은 아랍계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정보원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방송3사는 NBC, AP 등과 같이 미국계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 공히 세계 곳곳에 10여명이 넘는 특파원을 파견했음에도 외신에 대한 의존과 편향성이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외신 받아쓰기로 양산되는 오보들

또한 방송사들이 속보경쟁에 매달리며 무분별하게 외신에 의존하다 많은 오보들이 양산되었

다. 우리 방송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영정부, 미군·영국군, 서방언론 쪽에서 나오는 불확실한 정보를 인용,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라크군과 아랍계 언론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오보는 미군의 바그다드 공습 첫 날의 후세인 사망설, 측근 사망설, 망명설 보도에서부터 이라크 남부에서의 이라크군의 대규모 투항 보도, 미·영 합동군의 압도적인 전황 보도, 이라크의 유정 파괴 보도, 화학공장 발견 보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표4>참조)

<표4> 방송3사 이라크침공 관련보도 오보 사례

사례	KBS	MBC	SBS
후세인사망설, 가짜설, 측근 사망설, 망명설	<한 때 사망설>(3.21) <망명 협상 중?>(3.22) <“최측근 3명 사망”>(3.22)	<후세인 부상설>(3.21) <진짜 후세인 맞나>(3.21) <수뇌부붕괴조짐>(3.23) <이라크 지도부 붕괴?>(3.24) <후세인 망명협상설>(3.24)	<후세인은 가짜?>(3.20) <“후세인 망명협상 중”>(3.22)
이라크군의 무기력한 대응 및 투항	<전의 상실...투항>(3.21) <사단 집단 투항>(3.22) <‘항복’ 물밑 협상>(3.23) <포로 급증 골치>(3.23)	<줄줄이 투항>(3.21) <무너진 항전의지>(3.23) <포로처리 고민>(3.23) <“이라크군바스라철수”>(3.24) <8천명 집단 투항>(3.24) <항복협상 급물살>(3.24)	<줄줄이 투항>(3.20) <이라크군 집단투항>(3.21) <‘항복협상’ 급진전>(3.22) <이라크군 어디갔나?>(3.22) <전쟁포로 ‘고민’>(3.23)
미군/영국군의 압도적 전황	<바스라 곧 함락>(3.21) <남부 장악 임박>(3.22) <바스라 포위 봉쇄>(3.23)	<바스라 점령 임박>(3.21) <160Km 남았다>(3.23) <저항없이 진격>(3.24)	<지상군 진격>(3.21) <‘바스라’ 곧 함락>(3.22) <사흘이면 바그다드>(3.22) <바스라 장악>(3.23)
유정파괴 논란	<유정 30개 불>(3.21)	<“유정파괴 나섰다”>(3.21)	<“유정을 지켜라”>(3.21) <공습, 불안>(3.22)
화학공장 발견 논란 등	<덤펍과 강력 경고>(3.22) <화학무기 공장?>(3.24)	<“화학공장 찾았다”>(3.24) <화학전 위기 고조>(3.24)	<화학무기 비상>(3.25)

이라크군의 투항 정도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헤드라인을 <줄줄이 투항>(SBS 3.20, MBC 3.21), <사단 집단 투항>(KBS 3.22)으로 뽑는다거나, 이라크의 유정파괴 논란보도에서 <“유정을 지켜라”>(SBS 3.21), <유정 30개 불>(KBS 3.21), <“유정파괴 나섰다”>(MBC 3.21)라는 단정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자나 앵커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군측 입장에서 단정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신인용의 출처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사흘정도면 수도 바그다드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SBS 3.22<사흘이면 바그다드>)라고 단정적 어투로 보도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전황 분석을 하며 미·영 합동군의 공격을 ‘파죽지세’(KBS 3.21<바스라 곧 함락>) 혹은 ‘전광석화’(KBS 3.22<남부 장악 임박>)라고 표현하며 사실여부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이라크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탱크를 버리고 줄행랑을 친다”(KBS 3.22<사단 집단 투항>)는

식으로 부정적 어휘를 사용, 사실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단정짓는 보도도 많았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 적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방송3사의 보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도도 극히 적었다. KBS의 경우 이라크침공 관련 보도 총 182쪽지 중 6쪽지, MBC의 경우도 전체 202쪽지 중 6쪽지 정도가 비판적 보도였을 뿐이었다. 오히려 전쟁 이전에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보도들이 정작 미국의 침공이 시작되어 전황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SBS의 경우에는 개전 이후 7일간 169쪽지의 보도 중에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비판하는 보도는 단 2쪽지에 불과했다.

게임식 화면, 흥미위주의 첨단무기 소개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이번 전쟁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생동감 넘치는 전쟁화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3사는 각각 버추얼스튜디오(KBS), 매직스튜디오(MBC), 사이버스튜디오(SBS)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전황을 전달했다. 보도 기자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선상에서 있거나 전차들이 질주하고 아파치 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컴퓨터그래픽 화면은 마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표5> 방송3사 특수부대, 첨단무기 소개 보도사례

KBS	MBC	SBS
<‘크루즈’가 주도>(3.20) <공격 지휘본부>(3.20) <첨단무기 시험장>(3.21) <위력적 무기 사용>(3.22) <전차가 좌우한다>(3.23) <최정예군 사수>(3.24) <이중 삼중 방어선>(3.26)	<미사일 공격선봉>(3.20) <최신예 폭격기 출격>(3.20) <항공모함 위력발휘>(3.20) <특수부대가 선봉>(3.20) <첨단무기 총출동>(3.20) <후세인 사살 특명>(3.21) <핵폭탄 같은 위력>(3.22) <진군선봉 101사단>(3.23) <최후보루 ‘수비대’>(3.23) <최첨단 지휘본부>(3.23) <전자폭탄 실전 등장>(3.26) <복면 쓴 게릴라 부대>(3.26)	<정확도 80%>(3.20) <공격선봉 ‘키티호크’>(3.20) <망속도 초토화>(3.20) <폭탄의 어머니>(3.21) <어둠속의 전사>(3.21) <전투기 출격>(3.21) <충격과 공포>(3.22) <특수부대 사담페다인>(3.25)

또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미명하에 방송3사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특수부대와 첨단무기를 소개하였다. 이것 역시 첨단무기의 뛰어난 성능이나 미국·영국 특수부대와 이라크 특수부대의 대결에 집중한 흥미성 보도의 한 전형이었다. 특히 MBC의 경우 개전 첫 날 무려 5건의

특수부대, 첨단무기 소개 보도를 함으로써 타 방송사보다 압도적으로 보도량이 많았으며, SBS의 경우에는 초대형 폭탄 MOAB에 대한 보도를 21일에 <폭탄의 어머니> 22일 <충격과 공포> 두 건 연이어 하였는데, 보도 내용이나 화면에 있어 별 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중복 보도였다.

전쟁비극 호도 말아야

개전 초 일주일 간 방송3사는 전쟁의 참혹함은 외면하고, 반전 여론에 대해서는 소홀했으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입장에 충실한 보도를 하였다. 또, 지나친 외신 의존 보도, 게임 식 화면 구성을 비롯해 오보까지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대부분의 정보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방송3사의 보도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려는 시각이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보도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 사례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가 추천하는 오락프로그램>

◇ KBS2 <폭소클럽>

- 방송날짜 : 매주 금요일 밤 24:15

- 책임프로듀서 강영원, 연출 서수민 류명준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코미디 '스타'대신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도

'불만한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없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3사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스타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연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학성, 선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연예오락프로그램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연예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고 시청자들이 함께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모범을 삼고자 모니터를 진행했다. 그 결과 KBS 2TV의 <폭소클럽>을 80여 개의 연예오락프로그램 중 '시청자들에게 추천할만한 연예오락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얼굴

최근 방송3사에서 제대로 된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연예오락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버라이어티 쇼' 형식이며 그나마도 연예인들의 '사담(私談) 장'으로 변형되었다.

KBS <폭소클럽>은 몇 안 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스탠딩 코미디'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코미디 프로그램이 대부분 '콩트나 '시추에이션' 형식이었기에 <폭소클럽>은 그 구성부터 신선하다. <폭소클럽>은 출연자의 입담과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다소 낯선 형식이다. 화려한 무대장치와 인기스타, 요란한 효과음에 익숙해 있는 시청자들에게 <폭소클럽>은 하나의 모험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폭소클럽>이 시도한 새로운 형식은 '신선하다'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또한 이 같은 구성은 연예오락프로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베끼기'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폭소클럽>은 '최형만의 공짜강의', '과학강사 장하나, 우리 몸의 신비', '서남용의 사물홍내 개그' 등 대부분의 폭지를 1인 출연자가 진행한다. 무대 위에서 관객(시청자)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진행방식은 연예인들끼리 웃고 즐기던 기존 연예오락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폭소클럽>의 미덕은 '스타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남용', '정용주' 등은 무명이나 다름없는 신인 코미디언이고 '최형만', '배동성' 등은 활동 경력은 오래 됐지만 '스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장하나', '김제동', '이은결' 등은 직업적인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다른 코미디언들이 주지 못하는 신선한 웃음을 주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 TV에서 만날 수 없는 '홀러 간 코미디언'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폭소클럽>의 미덕이다.

참신한 아이디어, 출연자들의 노력 돋보여

<폭소클럽>이 보여주는 이러한 '출연진의 파격'은 시청률의 제1 순위로 '스타'의 출연 여부를 끄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관행에 비춰볼 때 파격적이다. 하지만 신인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노력만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폭소클럽>은 확인시켜주고 있다. 새로운 형식과 함께 <폭소클럽>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신선한 소재와 아이디어, 그것을 유쾌하게 전달하는 출연자들의 부단한 노력이다.

최형만의 코미디는 형식적으로는 흔한 성대모사와 몸 동작 흉내에 불과하지만 매주 새로운 주제의 강의를 선보인다. 최형만의 강의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풍자가 녹아 있다. 장하나의 강의도 특유의 과장된 말투와 몸짓으로 '성'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지만 선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상식을 전달하고 있다. 김제동의 '대중 앞에서는 법'은 말 그대로 대중 앞에서는 방법에 대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재치 있고 순발력 넘치는 즉흥대사와 함께 재밌게 전달한다. 이은결의 '매직 투나잇'은 전문 마술사의 마술에 유머를 담아 전혀 색다른 모습의 코너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폭소클럽>의 폭지들은 단순한 재미만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풍자와 정보전달의 역할까지 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항상 관객과의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선정성', '인권침해', '가학성'을 <폭소클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준형 '게스트 클럽' 등 기존 형식 답습 아쉬움

〈폭소클럽〉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정린의 '성대모사 특강'은 매주 별 다를 바 없는 연예인 성대모사가 반복되며, 김지선의 '재밌는 이야기'를 비롯한 중견 코미디언들의 재담은 별 의미 없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대부분이다. 〈폭소클럽〉의 다른 출연자들이 매주 새로운 아이템 개발 노력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박준형의 '게스트클럽'은 '스타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폭소클럽〉의 다른 꼭지들과 대조된다. 박준형의 '게스트클럽'에 소개되는 출연자들은 '연예계 스타'이거나 기획사에서 이른바 '떠워주는' 연예인들이 대부분이다. 방송 내용 역시 출연자들과 신변잡기 위주로 흐르고 있어 기존 연예오락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방송시간이 심야시간이라 주시청 층이 성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간혹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배동성의 '부부리포트'는 성을 소재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우려할 만하다. 아직까지 오락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할 의무가 없지만, 이 프로그램만이라도 제작진들이 먼저 등급제를 표기해 '성인프로'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폭소클럽〉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예오락프로그램과 질적으로 다른 유쾌하고 기분 좋은 웃음을 던져 주고 있다. 이는 기계에서 찍어 낸 것처럼 비슷비슷한 내용과 형식, 똑같은 연예인들이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미가 크다. 또한 〈폭소클럽〉은 제작진과 방송사들에게 '스타연예인'의 인기로 영합하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인들을 발굴할 필요성도 제시한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유쾌한 웃음'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연예오락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가슴 시원한 웃음을 터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례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이 달의 좋은 방송>

◇MBC <어사 박문수>

- 방송날짜 : 2002년 12월 9일~2003년 2월 4일 오후 9시 55분

- 기획 장근수, 연출 정인, 극본 고동률 유진희

통쾌한 '개혁' 드라마

〈어사 박문수〉는 궁중암투 중심의 기존 사극에서 벗어나 부패척결과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의 전통인 해학과 풍자로 풀어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생생한 묘사와 빠른 상황전개, 시청자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연기에 배철수씨의 감칠 맛 나는 해설까지 어우러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신선함을 견지했다. 이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는 MBC 〈어사 박문수〉를 2003년 2월,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드라마 속 시대정신은 '부패척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했다. 드라마 〈어사 박문수〉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박문수는 개혁군주 영조와 함께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허물어져가는 조선왕조를 다시 한 번 개혁의 길로 이끌었던 인물로 묘사된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어사 박문수'의 활약을 보며 현실 정치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올바른 개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적한다. 주인공인 박문수(유준상 분)가 첫 회에서 영조에게 "당색이 정해진다 한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임금을 받을 것이며...소인 또한 오로지 백성을 위한 임금을 받을 뿐이옵니다"라며 '백성을 위한 것'이야말로 올바른 정치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제는 '박문수'가 각 고을을 돌며 사리사욕을 탐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어사일행이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며 해악을 일소하고 백성들의 울분을 씻어주는 대목에서 시청자들은 현실에서는 찾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의 사극에서 '결다리' 정도로 취급되었던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도 차별적이다. '이인좌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도 이 드라마는 단순한 권력 쟁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란에 동조했던 백성들의 안위가 주 관심사로 등장해 〈어사 박문수〉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신선한 형식, 친근한 캐릭터

〈어사 박문수〉는 주제와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실험성을 가미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철수씨의 나레이션이다. 드라마에서 배철수씨의 나레이션은 단순한 '홍안거리' 이상이다. 〈어사 박문수〉는 기존 사극에 비해 해설자의 역할을 늘리고 당시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배철수씨의 친근한 해설로 드라마의 내용은 물론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까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드라마의 구성도 치밀한 수사극 형식을 띠고 있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매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새로움과 개성이 넘친다. 보통의 사극 캐릭터들과는 달리 주인공 박문수 역의 유준상씨는 '어깨에 힘을 뺐' 사람냄새가 나는 연기를 했다. 박문수를 따라다니며 감초 노릇을 하는 칠복역의 이한위씨도 천연덕스럽고 능청스런 연기를 펼쳐 이제 사극도 체면과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치의 대상이 되는 탐관오리들의 연기와 대사 또한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던 건 아니었다. 16부작으로 기획된 〈어사 박문수〉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 시상식 등과 맞물리며 1회를 앞당겨 종영되면서 뒤로 갈수록 전개가 영성해졌으며 무협장면이

나 대사처리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어사 박문수>는 정형화된 사극의 개념을 탈피하려고 노력한 참신한 기획과 시도,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시청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한 드라마였다. 앞으로도 <어사 박문수>와 같이 선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새로운 드라마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이 달의 나쁜 방송>

◇SBS <아인시대>

- 방송날짜 : 매주 월, 화 오후 9시 55분
- 연출 장형일, 극본 이환경

역사에 대한 가공은 어느 선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

SBS 월, 화 드라마 <아인시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역사왜곡'과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강도를 더해 간다. 문제는 <아인시대>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미화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설득력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특정 인물을 영웅화하기 위해 차용된 '드라마적 상상력'이 오히려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회는 <아인시대>를 2월, 이 달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했다.

역사를 왜곡하는 <아인시대>

역사드라마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주요한 논쟁거리다.

사회 일각에서는 <아인시대>가 역사적 진실과 사실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인시대>가 극의 재미를 위해 없던 사건을 만들어 내거나 과장하는 단순 사실의 변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아인시대>가 기존 드라마와 다른 비판의 지점에 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 속의 김두한은 일제시대에는 종로일대를 장악한 조직폭력집단의 우두머리였고, 해방공간에서는 백주에 우익백색테러도 서슴없이 감행한 인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단순 폭력배가 '항일 민족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민족의 애국자', '독립 투사'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친일명부에 올라있는 인촌 김성수씨가 민족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역사의 왜곡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넘어서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김두한이 어린 시절의 온갖 수난을 이겨내고 건달 세계의 상명하복과 의리를 배워가면서, 힘을 권 권력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전형적인 영웅신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드라마는 난세에 태어난 한 명의 뛰어난 영웅이 시대의 무질서를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된다는 철저한 영웅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드라마의 관점은 시청자들의 의식을 과거로 후퇴시켜 절대권력에 대한 반동적 향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인시대>는 해방공간으로 극의 무대를 옮기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를 등장시키며 그 대립점의 좌파세력을 '악의 축'으로 모는 선악 이분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김두한을 필두로 한 우익 강패들은 좌익세력을 서슴없이 '빨갱이'라고 부르고, 공산주의 세력이 김두한 암살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부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인시대>에서는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데올로기가 양극화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영웅의 적은 시대의 적으로 치환되며, 반공이데올로기가 화면을 채울 뿐이다.

위험수위 넘은 폭력의 미화

또한, <아인시대>의 빈약한 이야기를 채워주고 있는 폭력, 절대권력 등 권위에 대한 숭배와 미화작업 역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 드라마가 생산하는 '폭력의 미화'는 극의 볼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비판적 TV시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화면은 온통 영웅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극적 장치로 넘쳐난다. 비장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근엄한 목소리의 내레이션으로 영웅들의 폭력은 단순 건달들의 그것과는 격이 다르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클로즈업된 영웅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면 시청자들은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 대한 경외심마저 갖게된다. 영웅의 폭력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지적할 부분은 <아인시대>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여성상이다.

흔히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역사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물묘사는 정형화 된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사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기생 설향과 설은 사랑에 맹목적이고 순종적인 여성들로 김두한에게 연정을 품고 주위를 맴도는 인물이다. 이 여성들은 한결같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희생을 감수하며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마다 않는다. 여성들의 존재와 역할은 극 전개 과정에서 영웅들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인물묘사는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작진의 반성과 성찰 필요

100회로 기획된 <아인시대>가 해방공간으로 시대를 옮겨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1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왜곡과 폭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정치드라마'로 바뀐 2부에서 시청률이 하락하자 있지도 않은 시라소니와 김두한의 결투장면을 삽입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아직까지도 맹목적인 레드 콤플렉스가 뿌리깊은 우리사회에서 이 드라마가 되살리는 섬뜩한 '마녀사냥'식의 정서다. 아직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들의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인시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제작진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만 무성할 뿐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제작진의 의중이 사회여론보다는 시청률 올리기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매번 외부의 지적이 일 때마다 제작진은 변화를 다짐해 왔다. 하지만 어떠한 개선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제작진의 다짐이 비판을 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방송이 상업화로 치닫고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방송이 견지할 책임이 있다. 상업방송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함은 자명하다. 제작진들은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영향

력을 고민하고, 무엇이 진정 사랑 받는 드라마인지 거듭 자문해 보길 바란다.

사극 '어사 박문수' 감동·재미 '생생'

- 민연련 '이달의 좋은 프로' 선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선정한 '2월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MBC 드라마 <어사 박문수>(사진)가 뽑혔다. 주로 교양 다큐프로그램을 선정해 왔던 민연련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드라마가 뽑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연련은 <어사 박문수>가 "궁중암투 중심의 기존 사극에서 벗어나 부패척결과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의 전통인 해학과 풍자로 풀어냈으며 생생한 묘사와 빠른 상황전개, 시청자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연기에 배철수씨의 감칠 맛 나는 해설까지 어우러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신선함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민연련은 "그 동안의 사극에서 '결다리' 정도로 취급되었던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도 돋보이는 차별성"이라면서 "이인좌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도 이 드라마는 단순한 권력 쟁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란에 동조했던 백성들의 안위를 주 관심사로 설정하는 등 <어사 박문수>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어사 박문수>는 형식의 실험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한 예로 배철수씨의 나레이션이 들었다. 민연련은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은 단순한 흥밋거리 이상"이라면서 "<어사 박문수>는 기존 사극에 비해 해설자의 역할을 늘리고 당시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이러한 친근한 해설로 드라마의 내용은 물론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의 나쁜방송으로는 SBS의 <야인시대>가 선정됐다. 민연련은 선정 이유로 '역사왜곡'을 들었다. 민연련은 "<야인시대>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역사왜곡'과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강도를 더해 간다"면서 "<야인시대>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특정 인물을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드라마적 상상력'이 역사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이호석 기자 2003-03-26 arisan@mediatoday.co.kr)

빛나간 SBS '이라크시위' 보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한 지난 22일자 방송사들의 보도는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KBS·MBC가 시위의 여러 측면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한 반면 SBS 보도는 이라크 현지의 '반미 정서'를 지나치게 소홀히 다룬 결과 핵심을 멀리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SBS는 <이라크, 전국서 각종 시위로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전역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마치 해방직후의 우리나라처럼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SBS는 "후세인 치하에서 억눌렸던 이라크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으며 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여서 종교지도자 석방요구, 후세인 반대와 미군철수를 외치는 정치적 시위, 전기와 물을 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시위가 매일 벌어진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라크가 해방직후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맺었다.

하지만 SBS를 제외한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이라크 시위는 대부분 반미와 무관하지 않았다. 겉보기에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군 반대 또는 이라크인들을 배제한 상태의 정부수립 반대 등 미국이 이라크에서 시도하려 하고 있는 여러 '주권 침탈적인' 행위에 대한 반발로 모아진다.

따라서 SBS처럼 각각의 시위를 따로 떼 놓고 보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SBS 보도에는 또 시위 전체를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혼란스러우며, 따라서 해서는 안될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국언론적 특성'이 은연 중에 묻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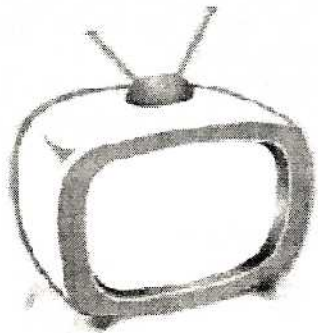
SBS와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를 비교해보면 단순 접근의 문제점이 좀더 명확해진다. 같은 날 방송된 MBC 보도는 <시아파 시위 격화>라는 제하로 "후세인 치하에서 억눌린 시아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MBC는 "시위대는 미군에게 체포된 고위 성직자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아파 성직자를 비롯한 지도층은 자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부 구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합해지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KBS도 22일 <대규모 고용으로 반미여론 불끄기> 라는 보도에서 격화되는 시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에 주목하면서 "시위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결론은 이미 미국이 개입할 이라크 문제는 없다는 것"이라는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반감과 종교적 갈등, 정부구성 주도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힌 이라크 시위를 겉으로 드러난 혼란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한 SBS의 접근방식은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디어오늘」 이호석 기자 2003-04-30 arisan@mediatoday.co.kr)

사회적소수자 관련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I. 시사교양프로그램

- 사회적소수자 범주 :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 모니터기간 : 장애인 2003년 2월 1일 ~ 6월 30일,
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모니터대상 : KBS, MBC,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II. 보도프로그램

- 사회적소수자 범주 :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 모니터 기간 : 2003년 7월 1일 ~ 2003년 8월 30일
- 모니터 대상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III. 좋은·나쁜 방송프로그램 및 좋은·나쁜 보도프로그램